

전일동향

저점 매수세에...1,375.00원에 마감

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370.40(15:30 기준) 대비 3.40원 하락한 1,367.0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을 소화하며 장 초반 하단을 낮췄으나, 저점 매수세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상승 전환했고, 뉴욕장 시간대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 상승 압력 받으며 1,375.00원에 종가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일간 장중 변동 폭은 10.7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55.43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67.00	1375.00	1364.30	1375.00	1370.30
	엔화	853.77	859.14	851.51	855.43	-
	유로화	1583.21	1593.78	1580.48	1588.26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54	-1.99	-4.83	-10.34
	결제환율(수입)	-0.07	-0.74	-2.68	-6.74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미-이란 공습 소식에...1,37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70.40, 15:30 기준) 대비 3.55원 상승한 1,373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강달러 분위기에 상승 전망한다. 간밤 미국과 이란의 상호 보복 공격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WTI 국제유가는 5.2% 상승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했고, 미 국채금리는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단기물 모두 상승하며 시장 전반적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심화시켰다. 이는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져 금일 달러/원 환율 또한 상방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 수급적으로는 월초 일시적 공급 공백을 틈타 유입되는 저가 매수가 하단을 지지할 수 있고, 최근 며칠 이어진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압력 받을 수 있다.

다만, 견조한 수출 실적과 반도체 기업의 환전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달러 유입 기대감이 상승 압력을 완화해줄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67.60 ~ 1379.8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4968.3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5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2766.88, -419.02p(-0.7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11.0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2373 억원